www.khidi.or.kr, www.khiss.go.kr

KHIDI Brief

발행일_ 2018. 6. 25 발행처_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발행인_ 이영찬

보건산업브리프 Vol. 264

통계분석 | 정책제도 | 동향전망

2017년 의약품 수출 동향 분석

산업통계팀
신유원

국내 제약산업은 과거 제네릭, 내수 중심에서 최근 기술수출 및 글로벌 신약 출시 등 연구개발 성과가 가시화되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단계로 접어드는 등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있음

2017년에 들어서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주요 의약품 수출 품목으로 등극하는 등 수출 불모지로 여겼던 유럽지역, 미국 등 선진시장 진출이 활발하게 일어나며 미래 신산업을 대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있음

Ⅰ 배 경

- 국내 제약산업은 과거 제네릭, 내수 중심에서 최근 기술수출 및 글로벌 신약 출시 등 연구개발 성과가 가시화되며 수출 불모지로 여겼던 유럽지역, 미국 등 선진시장 진출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등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있음
  - 2017년에 들어서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주요 의약품 수출 품목으로 등극하였으며, 수출 상위 20개국 중 유럽지역 10개국이 포함되는 등 미래 신산업을 대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있음
- 파이선(Python3)을 이용해 워드클라우드 시각화 분석을 한 결과 2017년 제약산업 키워드는 '바이오', '바이오시밀러', '유럽', '허가', '항체', '특허', '자가면역질환' 등으로 나타남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8 KHIDI 보건산업 전망 포럼」 자료집, 2017.12

[그림 1] 2017년 제약산업 키워드 분석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최의 「2018 KHIDI 보건산업 전망 포럼」('17.12)에서 발표한 2017년 의약품 수출은 35.9억 달러로 예측하였으나, 예상보다 연말에 큰 폭으로 증가하며 당초 전망치보다 4.7억 달러 상회한 40.6억 달러를 기록하며 우수한 성과를 달성함
- 본고는 2017년 국내 의약품 수출 동향을 분류별, 국가별, 지역별, 품목별로 세분화해 최근 5년간 추이를 분석해 주요 수출 성과를 살펴보고자 함

Ⅱ 자료 및 분석방법

- 자료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Facts & Survey Report, 각 연도
  - 한국무역통계진흥원(TRASS) 무역통계
  - UN Comtrade Database
- 분석방법
  - 최근 5년간(2013~17년) 우리나라 의약품 수출 현황 분석
  - 의약품 분류별(완제/원료), 국가별, 지역별, 품목별 수출 동향 분석
  - 수출 대상국가에서의 우리나라 의약품 수입국 순위 분석 등

Ⅲ 2017년 의약품 수출 동향 분석

1. 의약품 수출입 총괄

- 2017년 우리나라의 의약품 교역액(수출+수입)은 100억 달러에 근접한 96.1억 달러로 전년 대비 11.6% 증가, 최근 5년간 연평균 8.9%씩 교역 규모가 커지고 있음
  - 내수시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시장 진출이 가속화됨에 따라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교역 규모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7년 의약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30.6% 증가한 40.6억 달러로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기록, 수입은 55.5억 달러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 의약품 무역수지는 14.9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수출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적자폭이 크게 완화됨
  - 의약품 수출은 2013년 이래로 매년 17.7%씩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으며, 5년세 수출액이 약 1.9배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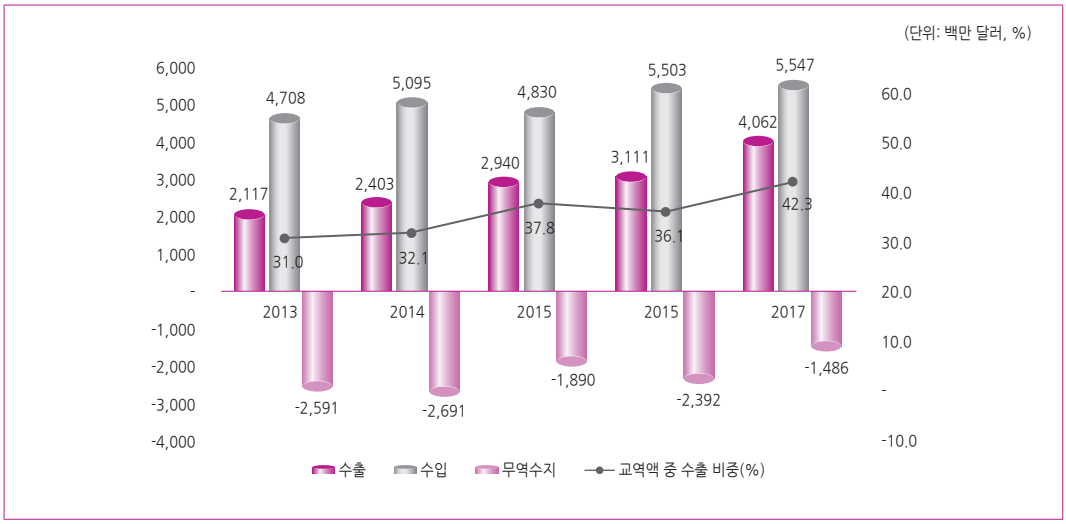
〈표 1〉 보건산업 및 의약품 교역 현황(2013~17년)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YoY	CAGR
보건산업	수출	5,717	6,875	8,581	10,223	12,186	19.2	20.8
	수입	8,733	9,477	9,196	10,114	10,600	4.8	5.0
	교역액	14,450	16,352	17,777	20,337	22,786	12.0	12.1
	무역수지	-3,016	-2,601	-614	109	1,587	-	-
의약품	수출	2,117	2,403	2,940	3,111	4,062	30.6	17.7
	수입	4,708	5,095	4,830	5,503	5,547	0.8	4.2
	교역액	6,826	7,498	7,770	8,614	9,609	11.6	8.9
	무역수지	-2,591	-2,691	-1,890	-2,392	-1,486	-	-

주: 1) 보건산업의 범위는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산업을 포함
2) YoY는 전년 대비 증감률, CAGR은 최근 5년(2013~17년) 연평균 성장률을 의미함
3) 교역액 = 수출 + 수입, 무역수지 = 수출 - 수입
자료: 1)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Facts & Survey Report
2)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수출입 통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재가공

⊙ 교역액(수출+수입)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3년 31.0%에서 2017년 42.3%로 그 비중이 11.3%p 상승하였으며,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함



[그림 2] 의약품 수출입 및 무역수지 현황

2. 의약품별(완제/원료) 수출입 동향

⊙ 2017년 완제의약품 수출액은 전년('16) 대비 51.8% 증가한 26.0억 달러(63.9% 비중)로 최초 20억 달러를 돌파하였고 최근 5년간 연평균 26.4% 증가하는 등 고성장을 이어감

- 동 기간 완제의약품 수출액은 2.6배 확대되었으며 총수출에서 완제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확대됨

* 완제의약품 수출 비중 : 48.1%('13) → 51.3%('14) → 56.7%('15) → 55.5%('16) → 63.9%('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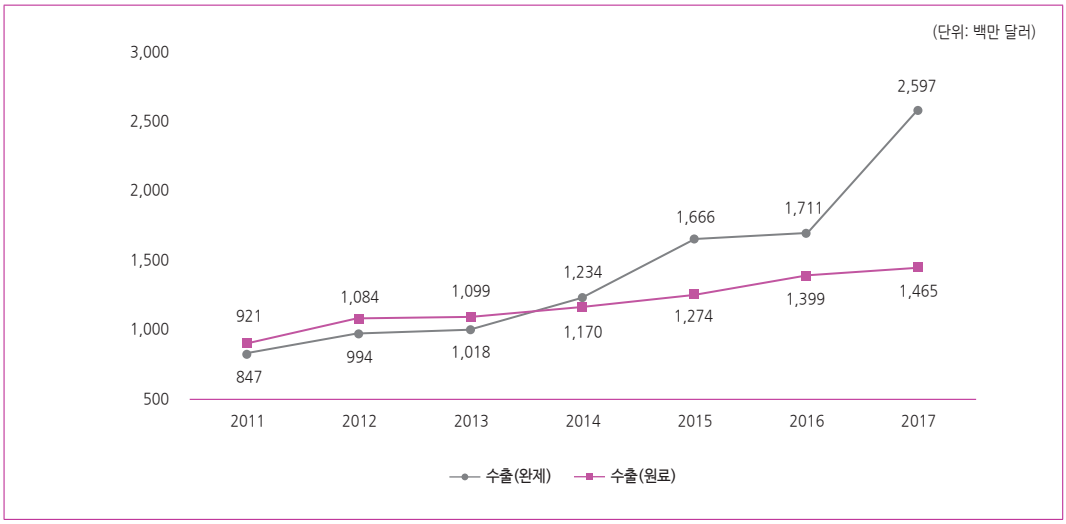
⊙ 2017년 원료의약품 수출액 역시 전년('16) 대비 4.7% 증가한 14.7억 달러(36.1% 비중)로 최고치를 경신하였으며, 최근 5년간 7.4% 증가하는 등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표 2〉 의약품별(완제/원료) 수출입 및 무역수지 현황(2013~17년)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YoY	CAGR
수출		2,117	2,403	2,940	3,111	4,062	30.6	17.7
	완제	1,018	1,234	1,666	1,711	2,597	51.8	26.4
	원료	1,099	1,170	1,274	1,399	1,465	4.7	7.4
수입		4,708	5,095	4,830	5,503	5,547	0.8	4.2
	완제	3,013	3,392	3,147	3,744	3,739	-0.2	5.5
	원료	1,695	1,703	1,683	1,759	1,809	2.8	1.6
무역수지		-2,591	-2,691	-1,890	-2,392	-1,486	-	-
	완제	-1,995	-2,158	-1,481	-2,033	-1,142	-	-
	원료	-596	-533	-409	-359	-344	-	-

⊙ 2013년까지는 원료의약품 수출이 완제의약품에 비해 더 많았으나, 2014년 처음으로 그것이 역전된 이후 매년 완제/원료 수출액 격차 폭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그림 3] 의약품별(완제/원료) 수출 현황(2011~17년)

3. 국가별 의약품 수출 동향

⊙ 2017년 국가별 의약품 수출은 일본이 5.0억 달러로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 뒤로 미국(3.9억 달러), 중국(3.6억 달러), 독일(2.2억 달러), 헝가리(2.1억 달러) 등 순으로 나타남

- 상위 20개국의 의약품 수출은 전체의 81.0% 비중에 달하며, 이 중 독일, 헝가리, 아일랜드 등 유럽 10개국 및 일본, 미국 등 선진시장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 또한 개별국가 기준 1억 달러 이상 수출한 국가는 11개국으로 전년 8개국 대비 확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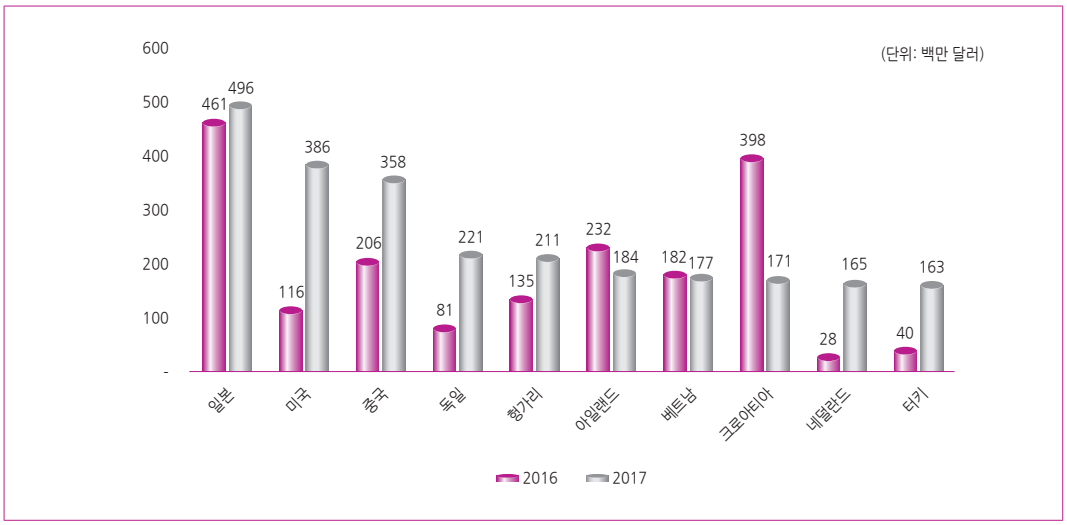
⊙ 수출 1위국인 일본은 순위변동이 없으며 수출 순위가 상승한 국가는 미국(7→2위) 및 독일(9→4위) 각 5위 상승, 네덜란드(25→9위) 16위 상승, 프랑스(23→12위) 11위 상승, 영국(75→14위) 61위 상승 하였으며, 반면 아일랜드(3→6위), 베트남(5→7위), 크로아티아(2→8위) 등은 순위가 하락함

〈표 3〉 국가별 의약품 수출 현황(2013~17년)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비중	YoY	CAGR
1	일본	373	384	494	461	496	(12.2)	7.6	7.4
2	미국	106	121	103	116	386	(9.5)	232.7	38.2
3	중국	169	157	166	206	358	(8.8)	74.1	20.6
4	독일	77	81	88	81	221	(5.4)	173.3	30.4
5	헝가리	5	9	174	135	211	(5.2)	56.3	156.6
6	아일랜드	72	123	132	232	184	(4.5)	-20.6	26.6
7	베트남	142	139	139	182	177	(4.4)	-3.0	5.6
8	크로아티아	9	57	87	398	171	(4.2)	-57.0	110.0
9	네덜란드	17	23	38	28	165	(4.1)	487.3	77.2
10	터키	71	156	254	40	163	(4.0)	301.7	22.8
11	브라질	86	87	91	113	153	(3.8)	35.6	15.6
12	프랑스	16	21	51	30	88	(2.2)	190.0	53.2
13	태국	39	47	60	40	83	(2.0)	105.8	20.4
14	영국	21	26	12	2	76	(1.9)	3,213.9	38.4
15	인도	85	70	63	77	69	(1.7)	-9.7	-5.0
16	스위스	6	10	52	12	69	(1.7)	461.0	81.8
17	이탈리아	48	69	68	44	59	(1.5)	34.9	5.3
18	필리핀	34	39	42	46	56	(1.4)	21.9	13.0
19	대만	27	36	30	35	55	(1.4)	58.5	19.2
20	홍콩	19	11	13	47	52	(1.3)	10.3	29.3
20개국 합계		1,422	1,665	2,156	2,325	3,292	(81.0)	41.6	23.3
기타국		695	738	784	785	770	(19.0)	-2.0	2.6
총 수출		2,117	2,403	2,940	3,111	4,062	(100.0)	30.6	17.7

◉ 2017년 수출 상위 10개국 중 미국(232.7%), 중국(74.1%), 독일(173.3%), 네덜란드(487.3%) 및 터키(301.7%) 등은 전년 대비 증가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크로아티아(△57.0%), 아일랜드(△20.6%) 및 베트남(△3.0%) 3개국은 수출액이 감소함



[그림 4] 국가별 의약품 수출 상위 10개국(2016~17년)

4. 의약품 수출국 집중도 분석

◉ 우리나라 의약품 수출국 집중도를 판단하기 위해 산업집중도(CR_3)를 준용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 의약품의 상위 3개국 수출점유율은 30.5%로 나타났으나, 제제별로는 완제의약품 27.5%, 원료의약품 47.7%로 차이가 발생함

〈표 4〉 상위 3개국 의약품 수출 집중도(CR_3) (2013~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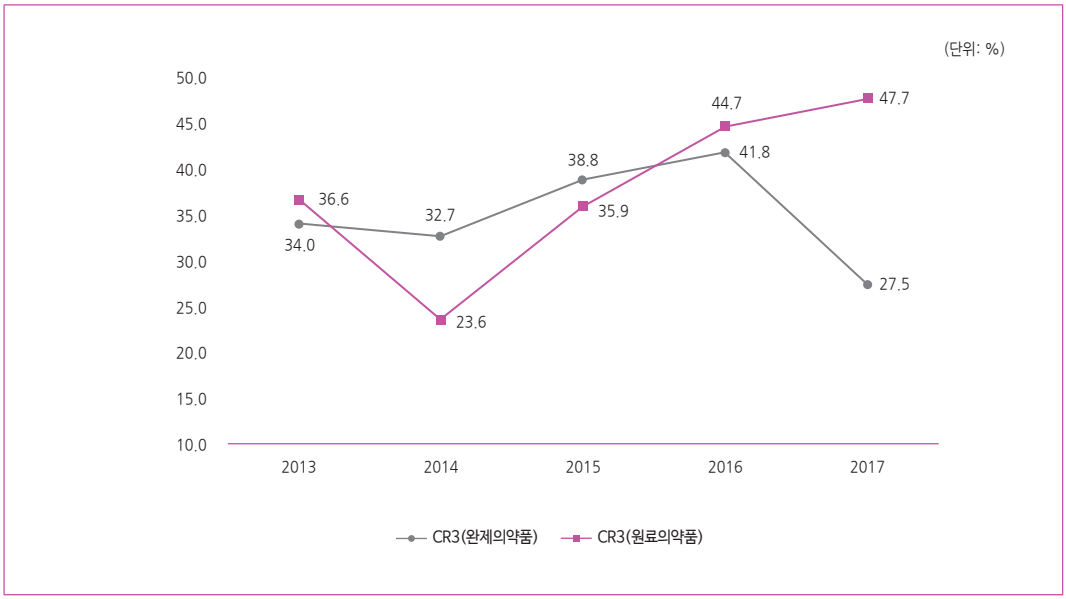
(단위: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CR_3(의약품 합계)	32.3	29.0	31.3	35.1	30.5
CR_3(완제의약품)	34.0	32.7	38.8	41.8	27.5
CR_3(원료의약품)	36.6	23.6	35.9	44.7	47.7

주: 산업집중도를 측정하는 방법인 상위기업집중률(CR_n)은 상위 n번째 기업까지의 시장점유율을 합계한 것으로 누적 시장점유율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시장점유율 상위 3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CR_3를 통용하여 사용함

◉ 완제의약품은 최근 5년간 상위 3개국(미국, 헝가리, 독일) 수출점유율이 감소해 2017년 27.5%로 '13년(34.0%) 대비 6.5%p 하락하는 등 점유율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임. 즉, 최근 들어 선진 및 신흥시장 진출에 노력한 결과 수출국 다변화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

- 반면 원료의약품은 2014년 이후 상위 3개국(일본, 아일랜드, 중국) 수출점유율이 매년 높아져 2017년에는 47.7%로 절반 가까이 달하는 등 특정국가로의 수출이 집중되고 있음



[그림 5] 의약품 수출 상위 3개국 집중도(CR_3) 현황(2013~17년)

5. 지역별 의약품 수출 동향

◉ 2017년 지역별 의약품 수출은 유럽 16.2억 달러(39.9%), 아시아/퍼시픽 15.4억 달러(38.0%), 북미 4.3억 달러(10.6%), 중남미 3.2억 달러(7.8%) 등 순으로 나타남

- 북미지역과 유럽지역으로의 수출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들 지역은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도 30% 이상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

〈표 5〉 지역별 의약품 수출 현황(2013~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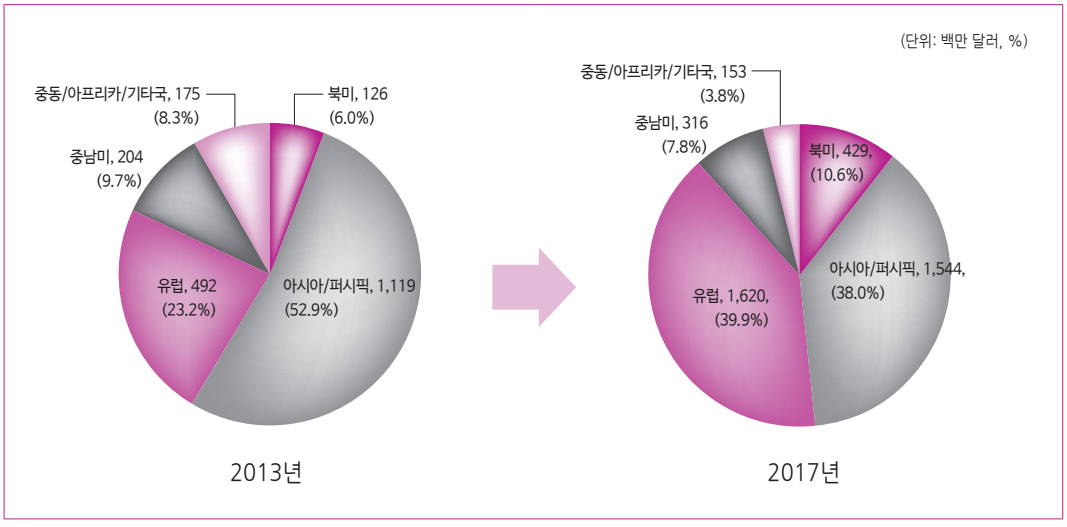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YoY	CAGR
총 수출	2,117 (100.0)	2,403 (100.0)	2,940 (100.0)	3,111 (100.0)	4,062 (100.0)	30.6	17.7
북미	126 (6.0)	178 (7.4)	188 (6.4)	154 (5.0)	429 (10.6)	178.8	35.8
아시아/퍼시픽	1,119 (52.9)	1,078 (44.8)	1,197 (40.7)	1,316 (42.3)	1,544 (38.0)	17.3	8.4
유럽	492 (23.2)	743 (30.9)	1,161 (39.5)	1,215 (39.1)	1,620 (39.9)	33.3	34.7
중남미	204 (9.7)	224 (9.3)	254 (8.6)	253 (8.1)	316 (7.8)	24.9	11.5
중동/아프리카/기타국	175 (8.3)	180 (7.5)	140 (4.7)	173 (5.5)	153 (3.8)	-11.4	-3.4

주: 괄호 ( ) 안의 값은 각 년도 해당 지역의 비중을 나타냄

◉ 최근 5년간 지역별 수출 비중을 살펴보면 2013년에 비해 아시아/퍼시픽으로의 수출 비중은 52.9%에서 38.0%로 줄어들었으며, 유럽(23.2%→39.9%) 및 북미(6.0%→10.6%) 지역의 비중이 확대됨

- 국내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유럽 및 미국에서의 판매허가 승인에 따라 수출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특히 유럽지역에서는 바이오시밀러 시장활성화 및 저렴한 약가로 인해 국내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그림 6] 지역별 의약품 수출 변화(2013년 Vs. 2017년)

6. 품목별 의약품 수출 동향

- 2017년 의약품 수출 상위 10개 품목 중 완제의약품 6개 품목, 원료의약품 4개 품목으로 나타남
- 특히 수출 상위 2개 품목은 HSK 3002호 중 바이오의약품에 해당하는 면역물품 품목으로 13.6억 달러를 수출하였으며 총 수출의 33.5% 비중을 차지함
  - 주요 수출국으로는 헝가리, 크로아티아, 터키, 독일 등 유럽지역 및 미국으로 진출하고 있음
- 백신은 1.8억 달러를 수출하며 5위 품목에 올랐으며 브라질, 페루, 에콰도르 등 중남미 지역 및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등 아시아 지역으로 수출하고 있음
  - HSK 3002200000(백신(인체용으로 한정)) 품목은 범미보건기구(PAHO)의 독감백신 입찰을 통해 중남미 지역으로 녹십자에서 대부분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보톡스 제품으로 수출한 3002903090(기타) 품목은 1.3억 달러를 기록하며 수출 7위 품목을 기록했으며, 중국, 태국, 홍콩,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 및 브라질 국가로 주로 수출하고 있음
  - 중국으로의 수출이 44.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그 뒤로 태국 15.7%, 홍콩 10.2% 비중 순

〈표 6〉 주요 의약품 수출 상위 10개 품목(2017년)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HSK1	품목명	수출국 및 수출액						총 수출액
			1위	2위	3위	4위	5위	기타국	
1	3002150000	면역물품 (완제)	헝가리	크로아티아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44개국	798
			208	169	94	73	53	201	
2	3002149000[1)]	기타 (완제)	미국	터키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푸에르토리코 등 19개국	564
			184	137	91	82	44	26	
3	3004909900[2)]	기타 (완제)	일본	베트남	중국	미국	홍콩	태국 등 112개국	487
			84	82	52	28	27	213	
4	2941909099[3)]	기타 (원료)	일본	중국	이탈리아	러시아	터키	인도 등 52개국	213
			75	28	25	11	10	64	
5	3002200000	백신 (인체용) (완제)	브라질	페루	인도네시아	에콰도르	방글라데시	베트남 등 104개국	183
			44	16	13	11	10	90	

1) 3002149000 : 기타 면역물품(혼합된 것에 한정,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은 제외)

2) 3004909900 : 기타 의약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으로 한정)

3) 2941909099 : 기타(항생물질 기타)

순위	HSK1	품목명	수출국 및 수출액						총 수출액
			1위	2위	3위	4위	5위	기타국	
6	2933999090[4]	기타 (원료)	일본	중국	아일랜드	미국	영국	벨기에 등 43개국	130
			56	22	14	7	6	25	
7	3002903090[5]	기타 (완제)	중국	태국	홍콩	브라질	베트남	일본 등 58개국	127
			56	20	13	11	6	21	
8	2933399090[6]	기타 (원료)	아일랜드	일본	벨기에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등 41개국	112
			72	9	6	5	2	18	
9	3004209900[7]	기타 (완제)	일본	베트남	중국	필리핀	방글라데시	미국 등 97개국	108
			32	25	25	5	3	17	
10	2934999090[8]	기타 (원료)	아일랜드	캐나다	미국	프랑스	일본	베트남 등 38개국	87
			32	15	7	7	6	21	

7. 주요국의 對한국 의약품 수입 순위 분석

⊙ 우리나라의 의약품 수출 상위 20개국을 대상으로 각 국가에서 한국으로부터 수입(해당국의 對한국 수입 순위)하는 의약품* 순위를 분석한 결과, 헝가리, 베트남, 크로아티아, 터키, 인도, 스위스에서 수입 시장점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HS 3002호 대상: 면역혈청, 혈액 분획물, 면역물품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해당 품목의 대부분은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하고 있음

⊙ 크로아티아는 2012년까지 對한국 수입이 전무하였으나, 2013년 8위에 오른 후 2014년부터 수입 1위국을 유지하고 있음

⊙ 헝가리 및 터키 역시 최근 5년 사이 순위가 급등해 2016년 수입 2위국을 기록하는 등 국내 바이오의약품의 해당국 수입 시장점유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4) 2933999090 : 기타(질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

5) 3002903090 : 기타(사람의 피, 치료용 · 예방용 · 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 · 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 백신 · 독소 · 미생물 배양체(효모 제외)와 이와 유사한 물품)

6) 2933399090 : 기타(붙지 않은 피리딘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7) 3004209900 : 기타(항생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8) 2934999090 : 기타(핵산(nucleic acids)과 그 염을 포함한다)

〈표 7〉 주요국의 對한국 의약품(HS 3002[주1)]) 수입국 순위(2012~16년)

(단위: 순위)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일본	15	19	12	5	15
미국	24	26	20	16	3[주2)]
중국	11	11	11	10	12
독일	22	37	39	22	19
헝가리	25	11	6	2	2
아일랜드	22	13	11	15	11
베트남	4	4	4	3	4
크로아티아	-	8	1	1	1
네덜란드	30	18	19	22	25
터키	7	10	5	2	2
브라질	11	10	14	12	10
프랑스	33	37	40	18	16
영국	20	27	35	30	29
인도	8	6	6	9	9
스위스	21	18	49	11	8
이탈리아	27	25	22	35	15

주: 1) HS 4단위 3002는 면역혈청, 혈액 분획물, 면역물품 등이 포함
2) 2016년 미국의 對한국 HS 3002호에 해당하는 의약품 수입액은 26.3억 달러로 집계되나, 실제 우리나라의 對미 의약품 총 수출액은 1.2억 달러에 불과함에 따라 2016년 기록한 3위는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3) 가용한 최신 데이터(~2016년)를 기준으로 분석
자료: UN Comtrade Database,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재가공

Ⅳ 요약 및 시사점

- 2017년 우리나라의 의약품 교역액(수출+수입)은 100억 달러에 근접한 96.1억 달러로 이 중 수출액은 전년 대비 30.6% 증가한 40.6억 달러, 수입은 55.5억 달러로 수출입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함
  - 교역액 중 수출 비중이 42.3%로 '13년(31.0%) 대비 11.3%p 상승,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치임
- 내수시장의 성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시장 진출을 가속화함에 따라 의약품 수출은 2013년 이래로 매년 17.7%씩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며 5년세 수출액이 약 1.9배 증가함
  - 특히 완제의약품 수출액은 전년('16) 대비 51.8% 증가한 26.0억 달러(63.9% 비중)로 최초 20억 달러를 돌파함
- 국가별 수출 순위는 일본, 미국, 중국, 독일, 헝가리 등 순이며 상위 20개국의 의약품 수출은 전체의 81.0% 비중에 달하며, 이 중 유럽 10개국 및 일본, 미국 등 선진시장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 개별국가 기준 1억 달러 이상 수출한 국가는 11개국으로 전년 8개국 대비 확대됨
- 최근 5년간 지역별 수출 비중을 살펴보면 2013년에 비해 아시아/퍼시픽으로의 수출 비중은 52.9%에서 38.0%로 줄어들었으며, 유럽(23.2%→39.9%) 및 북미(6.0%→10.6%) 지역의 비중이 확대됨
- 주요 수출 상위 품목은 면역물품(바이오의약품), 백신, 보톡스 등이며 면역물품은 유럽 및 미국 등으로 13.6억 달러를 수출하였으며 총 수출의 33.5% 비중을 차지함
  - 백신 제품은 중남미 및 아시아 지역으로 1.8억 달러를 수출, 범미보건기구(PAHO)의 독감백신 입찰을 통해 대부분 녹십자에서 수출하고 있음
  - 보톡스 제품은 중국, 태국, 홍콩 등으로 1.3억 달러를 수출하며 중국으로의 수출 비중이 44.1%로 가장 높음
- 주요국의 對한국 의약품(면역혈청, 혈액 분획물, 면역물품 등) 수입 순위를 분석한 결과, 헝가리, 베트남, 크로아티아, 터키, 인도, 스위스 등에서 수입 시장점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美FDA Gottlieb 국장은 최근 CNBC 인터뷰('18.3.28)에서 "바이오시밀러 개발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12개의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 밝히는 등 국내 기업의 미국시장 진출에 긍정적 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며, 유럽 진출을 경험삼아 미국시장 선점을 위해 더욱 노력을 경주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V 참고문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TRASS) 무역통계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8 KHIDI 보건산업 전망 포럼」 자료집, 2017.12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Facts & Survey Report, 각 연도
- UN Comtrade Database
- CNBC, CNBC'S HEALTHY RETURNS CONFERENCE(www.cnbc.com)

◉ 집필자 : 산업통계팀 신유원 ◉ 문의 : 043-713-8419

◉ 본 내용은 연구자의 개인적인 의견이 반영되어 있으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 본 간행물은 보건산업통계포털(http://www.khiss.go.kr)에 주간단위로 게시되며 PDF 파일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KHISS 보건산업통계시스템 www.khiss.go.kr